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현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두피 모발 상태에 대한 인식과  
두피 모발 관리 실태 분석

2018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피부미용학전공  
강 진 주

두피 모발 상태에 대한 인식과  
두피 모발 관리 실태 분석

배 현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피부미용학전공

강 진 주

# 인 준 서

강진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 논문개요

모발은 인간의 개성과 외모적 자신감, 다양한 분위기 등을 연출해주는 미의 또 다른 요소가 되지만, 최근에는 과도한 스트레스, 식생활의 변화 예전보다 잦아진 펌, 염색 등으로 두피 모발의 손상 및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두피 모발 화장품 산업의 마케팅 시장에서는 기능성 제품의 출시와 판매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두피 모발의 상태의 인식에 따른 관리실태를 분석해 두피 모발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두피 및 모발 관리 프로그램과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국의 20-50대 성인 남녀 319명을 대상으로 두피와 모발의 상태를 자가진단하게 하여 점수화 시킨 후 상위-중간-하위 그룹의 세 그룹으로 나누고, 본 연구에서는 상위 그룹을 양호, 중간 그룹을 보통, 하위 그룹을 불량으로 구분하였다. 이 때 두피 상태 인식에 대해 양호, 보통, 불량의 평균점수는 각각 44.87, 36.03, 27.70점이었고, 모발 상태 인식에 대해 양호, 보통, 불량의 평균점수는 각각 39.95, 31.04, 22.27점이었다.

첫째,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대한 남녀의 차이에서는 남성의 경우 두피 및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응답이 55.7 %로 양호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두피 및 모발의 상태가 불량하다는 응답이 90.5 %로 불량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둘째,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생활습관을 살펴본 결과 두피 및 모발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한 그룹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자주 있다'(25.0 %)와 '매일 있다'(34.6 %)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양호한 그룹에서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8.9 %)와 '가끔 있다'(27.8 %)라는 응답이 높았다.

셋째,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샴푸, 트리트먼트, 린스의 사용방법을 살펴본 결과 하루 샴푸횟수가 두 번 이상이라는 응답이 두피 및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한 그룹에서는 20.2 %로 불량하다고 인식한 그룹에서는 2.9 %로 나타났다. 샴푸 후 물로 헹구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두피 및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한 그룹에서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7.8 %, 불량하다고 인식한 그룹에서는 24.0 %로 나타났다.

넷째,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두피 및 모발 관리 방법을 살펴본 결과 사용하는 두피 모발 화장품 개수를 묻는 질문에서 ‘3개 이상’이라는 응답이 두피 및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한 그룹에서는 5.6 %, 불량하다고 인식한 그룹에서는 10.6 %로 나타났다.

다섯째,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제품 사용횟수와 제품 구매시 고려사항을 살펴본 결과, 모발 타입을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두피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한 그룹에서의 평균점수는 3.72점으로 나타났고 불량하다고 인식한 그룹에서의 평균점수는 3.36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센스 및 세럼의 사용빈도를 묻는 질문에서 두피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한 그룹의 평균점수는 3.05점으로 나타났고 불량하다고 인식한 그룹에서는 2.24점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은 두피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두피 모발을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제품구매시 가격보다는 두피나 모발의 상태를 많이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피 및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 두피 사용하고 있는 모발 화장품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자신의 두피 및 모발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어 그에 따른 두피와 모발의 맞춤 관리와 제품의 연구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 론 .....	1
II. 이론적 배경 .....	3
1. 두피의 구조와 기능 .....	3
2. 모발의 구조와 기능 .....	4
3. 두피 모발의 관리 방법 및 행동 .....	5
4. 두피 모발 화장품 .....	6
III. 연구방법 .....	9
1. 연구대상 .....	9
2. 연구 도구 .....	9
3. 연구문제 .....	10
4. 자료분석 .....	11
IV. 결과 및 고찰 .....	12
1. 일반 사항 .....	12
2. 두피 모발 상태에 대한 인식 .....	13
1) 일반적 특성과 두피·모발 상태 인식 정도 .....	13
2) 두피 상태 인식과 모발 상태 인식의 상관관계 .....	17
3)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과 생활 습관 .....	19
3. 두피 모발 관리 실태 .....	23

1) 두피·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샴푸 방법 .....	23
2) 두피·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린스 및 컨디셔너 사용 방법 .....	28
3) 두피·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두피·모발 관리 방법 .....	30
4. 두피 모발 화장품 구매 행동 .....	31
1) 두피·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제품 구매시 고려사항 .....	31
2) 두피·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제품 사용 횟수 .....	33
 V. 결론 및 .....	 35

참고 문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설문지 구성 .....	10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	12
표 3. 일반적 특성과 두피 상태 인식 정도 .....	14
표 4. 일반적 특성과 모발 상태 인식 정도 .....	15
표 5. 일반적 특성과 두피 모발 상태 인식 정도 .....	17
표 6. 두피 상태 인식과 모발 상태 인식의 관계 .....	18
표 7. 두피 상태 인식과 모발 상태 인식의 상관관계 분석 .....	18
표 8. 두피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생활습관 .....	19
표 9.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생활습관 .....	20
표 10.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생활습관 .....	22
표 11. 두피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샴푸 방법 .....	24
표 12.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샴푸 방법 .....	25
표 13.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샴푸 방법 .....	27
표 14. 두피 상태의 인식에 따른 린스 및 컨디셔너 사용방법 .....	28
표 15.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린스 및 컨디셔너 사용방법 .....	29
표 16.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린스 및 컨디셔너 사용방법 .....	30
표 17.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두피 및 모발 관리방법 .....	31
표 18.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제품 구매시 고려사항 .....	32
표 19.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두피 모발 화장품 사용횟수 .....	33

## I.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학업, 취직, 치열한 경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인해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으로 만들어 졌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미의 기준에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자극을 하며 오늘날 외모지상주의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으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모발은 인간의 개성과 외모적 자신감, 다양한 분위기 등을 연출해주는 미의 또 다른 요소가 되지만, 두피 모발의 손상이나 심한 탈모의 경우 헤어스타일 연출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아름다운 모발은 건강한 두피와 모발에서 시작된다. 환경오염과 과도한 스트레스,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우리 몸의 불균형에서 오는 두피와 모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전보다 잦아진 펌, 염색 등에 의해 모발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문제성 두피 및 탈모 증상까지 증가 되고 있다(위수영 임은진,2010).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는 모발 생성의 근원이 되는 두피의 청결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두피 및 모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일상적인 샴푸나 두피 스케일링, 트리트먼트를 하고 기타 기기로 모발 손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특수 두피관리가 필요하다(국경미 김춘득, 2010). 현대사회에서 두피 모발 관리는 헤어스타일로써의 외모 가꾸기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모발과 두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의 중요성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미용실 등의 관리실이나 병·의원에서 전문적으로 행해지기도 하지만 개인이 제품을 이용해 손쉽게 모발·두피의 손상 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가 관리를 하기도 한다(배인선 등, 2011).

두피·모발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배인선과 고경숙(2011)은 모발·두피

관리 성향이 제품의 구매 활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밝혔다. 또한 류혜란과 김남연(2010)은 30-40대 남성은 관련 지식의 부족과 비용의 문제 때문에 다른 외모관리에 비해 두피, 모발 관리에는 금전적, 시간적 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보였고 두피, 모발 관리의 관심이 치료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상적, 심미적 관심의 영역으로 옮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위수영(2010), 오정선(2011), 김근수 등(2011)은 외모 관리 행동과 모발·두피 관리 성향이 제품 구매 활동에 비교적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고 했다.

이와 같이 모발·두피관리의 필요성과 인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성별, 지역, 나이에 국한되어 있고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 정도가 두피 모발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과 관리 실태에 관해 알아봄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두피·모발 시장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정보를 공급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두피의 구조와 기능

두피는 인체를 덮고 있는 피부 조직 중 두부를 보호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며(이진희, 2011) 모발이 자라나는 부위를 말한다. 영어명칭은 Scalp며, 두개골 상부 구조들인 피부, 결합조직, 건막, 성긴 결합조직, 두개골막 의 첫 글자를 따서 명명하게 되었다(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2017). 두피는 두부 표면을 둘러싸고 있어 외부의 물리적 자극이나 화학적인 변화를 완충시켜 두부 내부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두피에는 모근부와 한선(소한선)이 발달되어 있으며, 인체의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해 모발의 생성에 관여한다. 건강한 모발을 생성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두피는 인체 조직 중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모낭과 혈관이 풍부하고 신경 분포도 조밀하며 섬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임순녀 등, 2011). 두피는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맥, 정맥, 신경들이 분포한 외피, 두개골을 둘러싼 근육과 연결된 신경조직인 두개피, 얇고 지방층이 없고 이완된 두 개 피하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피의 진피층에는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어 두부의 외상에 의해 출혈이 발생하며, 조밀한 신경분포를 통해 머리카락을 통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한다(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2017).

두피에는 보호 기능이 있다. 모발과 피부로 인해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두피의 표면은 약산성(PH4.5~6)이기 때문에 병원균의 번식, 활동을 막아준다. 또한 기저층의 멜라닌으로 인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다. 또한 두피에는 혈관, 림프관, 한선이 도포되어 있어 혈류량을 조절하고 입모근에서는 수축과 이완을 통해 모공을 개폐하여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 인체는 1~3 %정도는 폐가 아닌 피부를 통한 호흡을 하는데 두피도 호흡 작용을 한다(장지연, 2011).

## 2. 모발의 구조와 기능

모발은 포유류 특유의 부속기관으로 단단하게 밀착된 각화 세포로 이루어진 고품의 원추 섬유이며, 털이 난 부위에 따라 두발, 수염, 액모, 음모, 체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강현지, 2011).

모발의 횡단면은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의 구조로 나눌 수 있다. 모표피는 비늘 형태로 모발 내부를 감싸고 있는 화학적 저항성이 강한 층이다. 모표피는 4~20장 정도로 겹쳐져 있고, 한 장의 모표피에도 각기 다른 성질이 있는데, 바깥쪽은 친유성이고 안쪽은 친수성이다. 모표피는 색깔이 없는 투명층이며 전체 모발의 10~15%를 차지하고 두꺼울수록 모발은 단단하고 저항성이 높다. 물리적 자극으로 인해 모표피에 손상, 박리, 탈락 등이 발생되면 모피질도 손상을 입게 된다(임경근, 2007). 모표피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해주고 모발의 습윤성, 광택 등을 결정한다(이정환, 2012). 모피질은 피질세포(케라틴 단백질)와 세포간 결합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발의 대부분(85~90%)를 차지한다. 모피질은 수많은 섬유질이 꼬아져 있고 섬유질과 섬유질 사이에서는 간층물질이 접착제 역할을 해준다. 모피질은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고 친수성이기 때문에 빗, 염색 시에는 모피질을 활용한다. 모피질은 탄력, 강도, 감촉, 질감, 색상을 좌우하며 모발의 성질을 나타낸다(임경근, 2007). 모수질은 모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내부가 비어있

어 공기가 들어있다. 연모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굵은 모발에만 존재한다(이정환, 2012).

모발은 종단으로 모근부와 모간부로 나눌 수 있는데, 모근부는 두피의 안쪽부분을 말하고 모간부는 두피의 바깥쪽으로 길어나온 부분을 말한다. 모근부에는 모낭, 모모세포, 모구, 모유두가 있다. 모낭은 모근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을 말한다. 모발은 모낭 안에서 자라고 모낭은 내모근소와 외모근소, 모유두, 기모근, 피지선, 한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피층에 연결되어 있다. 모모세포는 모구의 오목한 부분에 있는 모유두와 접한 세포로 끊임없이 분열, 증식을 되풀이한다. 모구는 모발이 생성되고 성장하는 장소로 모근의 아래쪽에서 전구 모양의 볼록한 형태로 위치한다. 모유두는 진피 세포층에서 나왔고, 모낭의 아래에 있으며 젖꼭지 모양을 하고 있다. 모세혈관과 자율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각종 영양소와 단백질 합성 효소, 호르몬, 산소가 공급된다.

### 3. 두피 모발의 관리 방법 및 행동

두피와 모발의 관리방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형태와 방법이 변화하고 있다. 예로부터 모발을 가다듬는 것은 신체 보호의 기능 이외에 주술적이며 심미적인 기능을 지녔으며, 인간의 종합적 표현의 수단이었다. 헤어스타일은 영향력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외모 변인 중에 하나로서 사회의 개방화에 따라 젊은 층에서 개성 표현의 수단이 되고, 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유행 및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때문에 헤어스타일을 위해 모발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거나 보호하는 두피와 모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이소정, 2008). 때문에 현재의 헤어 시장은 모발 건강의 개념이 생겨서 퍼머넌

트와 염색같은 시술에 의해 손상된 모발을 재생시킨다는 클리닉 개념이 유행하고 모발 전문 관리실도 성행하고 있다(김경민, 2006). 두피 모발 관리 행동이란 두피질환, 모발의 손상 및 탈모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샴푸, 린스, 토닉과 같은 화학적인 두피 모발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두피마사지, 건강한 식습관 실천, 전문 관리실 또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관리 등으로 두피 모발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개인이 실천하는 행동을 말한다(김광희, 2017). 모발 관리 행동이란 모발의 생태, 형태, 구조, 화학적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퍼머넌트, 웨이브제, 염모제, 정모제 등 모발 화장품을 사용하여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말한다(이소정, 2008).

두피 모발의 관리 방법은 크게 화학적 관리, 물리적 관리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관리는 코밍, 세발, 영양공급, 두피마사지, 두피 모발 기기 사용 등을 말하고 화학적 관리는 두피 모발 화장품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 물리적 관리는 대부분 두피 모발 관리실에서 이루어 진다. 두피 모발 관리실에서는 생활습관, 식사, 건강상태, 심리상태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해 문제점의 원인과 관리방법을 제시한다.

#### 4. 두피 및 모발 화장품

화장품법 제2조 1항의 화장품에 관한 정의에서는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화장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약사법 제2조 4항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근거에 따라 모발과

두피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을 두피 및 모발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다(이영재, 2005).

시판중인 두피 및 모발 화장품에는 샴푸,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에센스 및 세럼, 두피용 앰플, 모발용 앰플, 헤어로션, 스프레이, 젤, 무스, 왁스 등이 있다. 샴푸는 세정을 통해 청결하게 하여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하는 제품을 말한다(임이화, 2006). 모발관리 시 샴푸는 피부의 pH농도와 유사한 pH5.5 정도의 약산성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샴푸 3회 사용시 1회 정도는 트리트먼트를 해주는 것이 좋다. 샴푸는 아침 시간보다 저녁 시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모모세포가 세포 분열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이기 때문이다(강현지, 2011).

컨디셔너는 정전기 방지 효과와 보습성과 유연 효과를 주고 컨디셔너의 잔여물이 두피에 남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이 헹구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트리트먼트는 치료, 처리, 처치라는 의미로 모발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손상된 모발을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에센스 및 세럼은 모발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두피용 앰플은 두피에 영양을, 모발용 앰플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준다. 헤어로션은 모발의 거칠어짐과 갈라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스프레이와 무스, 젤은 헤어스타일을 일정한 형태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왁스는 수분과 기름의 피막에 의해 촉촉한 윤기가 나오며 모발의 재손질이 가능하여 움직임이 있는 스타일에 사용하기 적당하다(임이화, 2006).

과거에는 잘 감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대용량의 저렴한 제품이 인기였다면 최근에는 더 좋은 성분, 뛰어난 기능을 강조한 제품이 인기를 끄는 추세다. 2016년 1분기에 토탈 뷰티 스토어인 올리브영에 따르면 헤어 제품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도 대비 50 % 이상 신장하였고 특히 자연성분, 무실

리콘, 탈모방지 등을 내세운 저자극 헤어 제품의 매출이 70 % 이상 신장했다고 밝혔다. ‘네츄럴 헤어 케어’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더모 헤어 케어(Dermo hair care)’ 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더모 코스메틱(Dermocosmetic)’은 ‘피부과학(Dermatology)과 ‘화장품(cosmetic)의 합성어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이 ‘더모(Dermo)’의 개념이 최근에는 두피와 모발로까지 확대된 것이다(연합뉴스, 2016).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0~50대 성인 남녀 31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5주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330부를 배포하여 부적절한 응답 11부를 제외한 319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연구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김관옥, 김성남(2011), 배인선, 고경숙(2011), 김지현(2013), 박지선, 임은진(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토대로 본 연구의 조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문항은 일반적인 특성 6문항, 생활습관 5문항, 두피 및 모발 타입 3문항, 두피 및 모발 관리 행동 14문항, 두피 및 모발 화장품 구매 속성 및 만족도 2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설문지 구성

조사항목	설문내용	문항 수	참고문헌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결혼 여부, 학력, 직업, 소득	6	김관옥, 김성남 (2011)
생활습관	스트레스, 음주, 흡연, 수면, 운동	5	김지현 (2013), 박지선, 임은진 (2009)
두피 및 모발 타입	두피 모발 타입, 두피 상태, 모발 상태	3	김지현(2013)
두피 및 모발 관리	사용하는 샴푸 종류, 샴푸 컨디셔너 사용 방법, 모발 건조 방법, 사용하는 두피 모발 화장품	14	김관옥, 김성남 (2011), 배인선, 고경숙(2011)
두피 및 모발 화장품 구매 속성 및 만족도	두피 모발 화장품 구매시 고려사항, 두피 모발 화장품 구매처, 두피 모발 화장품 사용 횟수	2	김지현(2013)

### 3. 연구문제

- 1)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과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 2) 두피 상태의 인식과 모발 상태의 인식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 3)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과 생활 습관의 관계 대해 알아본다.
- 4)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과 관리 행동에 대해 알아본다.
- 5)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과 제품 구매 행동 및 사용 빈도에 대해 알아본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수행 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에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두피 및 모발상태에 대한 인식이 두피 및 모발 관리와 화장품 구매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비모수 기법인 경우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두피 모발 상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주어진 문항에 대한 응답을 점수화 시킨 후 상위-중간-하위 그룹의 세 그룹으로 나누고 본 연구에서는 상위 그룹을 양호, 중간 그룹을 보통, 하위 그룹을 불량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 때 두피 상태 인식에 대해 양호, 보통, 불량에의 평균점수는 각각 44.87, 36.03, 27.70점이었고, 모발 상태 인식에 대해 양호, 보통, 불량에의 평균점수는 각각 39.95, 31.04, 22.27점 이었다.

## IV. 결과 및 고찰

### 1.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2에 나타내었다. 먼저 연령의 경우 25세 이하 58.9 %, 26-30세 19.7 %, 36세 이상 14.4 %, 31-35세 6.9 %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 27.9 %, 여자 72.1 %로 여자가 많이 표집 되었다. 결혼 여부의 경우 미혼 82.8 %, 기혼 17.2 %로 미혼이 많이 표집 되었다. 직업은 학생 34.2 %, 전문직 25.7 %, 회사원 20.7 %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100-200만원 36.1 %, 100만원 미만 34.5 %, 200-300만원 19.1 %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N (%)
연령대	25세이하	188 (58.9)
	26-30세	63 (19.7)
	31-35세	22 (6.9)
	36세이상	46 (14.4)
성별	남자	89 (27.9)
	여자	230 (72.1)
결혼여부	미혼	264 (82.8)
	기혼	55 (17.2)
학력	고졸이하	144 (45.1)
	대학교 졸업	164 (51.4)
	대학원 졸업	11 (3.4)

직업	학생	109 (34.2)
	주부	17 (5.3)
	회사원	66 (20.7)
	공무원	7 (2.2)
	전문직	82 (25.7)
	기타	38 (11.9)
소득	100만원미만	110 (34.5)
	100-200만원	115 (36.1)
	200-300만원	61 (19.1)
	300-400만원	16 (5.0)
	400만원이상	17 (5.3)
	합계	319 (100.0)

## 2. 두피 모발 상태에 대한 인식

### 1) 일반적 특성과 두피·모발 상태 인식 정도

두피 상태 인식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표 3), 연령의 경우 두피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36세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두피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두피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별로는 두피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대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별로는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100-200만원이 높고,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200-300만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두피 상태 인식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일반적 특성과 모발 상태 인식 정도

		불량	보통	양호	합계	$\chi^2(p)$
		n (%)	n (%)	n (%)	n (%)	
연령대	25세이하	58 (55.2)	68 (58.1)	62 (63.9)	188 (58.9)	6.174(.404)
	26-30세	27 (25.7)	19 (16.2)	17 (17.5)	63 (19.7)	
	31-35세	8 (7.6)	8 (6.8)	6 (6.2)	22 (6.9)	
	36세이상	12 (11.4)	22 (18.8)	12 (12.4)	46 (14.4)	
성별	남자	10 (9.5)	25 (21.4)	54 (55.7)	89 (27.9)	57.295*** (.000)
	여자	95 (90.5)	92 (78.6)	43 (44.3)	230 (72.1)	
결혼여부	미혼	91 (86.7)	91 (77.8)	82 (84.5)	264 (82.8)	3.373(.185)
	기혼	14 (13.3)	26 (22.2)	15 (15.5)	55 (17.2)	
학력	고졸이하	41 (39.0)	56 (47.9)	47 (48.5)	144 (45.1)	4.460(.347)
	대졸	59 (56.2)	56 (47.9)	49 (50.5)	164 (51.4)	
	대학원	5 (4.8)	5 (4.3)	1 (1.0)	11 (3.4)	
소득	100만원미만	34 (32.4)	45 (38.5)	31 (32.0)	110 (34.5)	5.172(.739)
	100-200만원	41 (39.0)	39 (33.3)	35 (36.1)	115 (36.1)	
	200-300만원	23 (21.9)	19 (16.2)	19 (19.6)	61 (19.1)	
	300-400만원	3 (2.9)	6 (5.1)	7 (7.2)	16 (5.0)	
	400만원이상	4 (3.8)	8 (6.8)	5 (5.2)	17 (5.3)	
	합계	105 (100.0)	117 (100.0)	97 (100.0)	319 (100.0)	

\*\*\* $p < .001$

모발 상태 인식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표 4), 연령대별로는 모발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 26-30세가 상대적으로 높고,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25세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발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여자 90.5 %, 남자 9.5 %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남자 55.7 %, 여자 44.3 %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이는 장지연(2011)의 모발의 손상도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며, 여성은 매일 사용하는 미용기기, 화학적 시술로 인하여 남성에 비해 모발이 손상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발 상태 인식에 따른 결혼 여부별, 학력, 소득별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에 모발 상태가 불량하다는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 일반적 특성과 모발 상태 인식 정도

		불량	보통	양호	합계	$\chi^2(p)$
		n (%)	n (%)	n (%)	n (%)	
연령대	25세이하	59 (54.6)	66 (61.1)	63 (61.2)	188 (58.9)	7.370(.288)
	26-30세	26 (24.1)	19 (17.6)	18 (17.5)	63 (19.7)	
	31-35세	10 (9.3)	9 (8.3)	3 (2.9)	22 (6.9)	
	36세이상	13 (12.0)	14 (13.0)	19 (18.4)	46 (14.4)	
성별	남자	25 (23.1)	30 (27.8)	34 (33.0)	89 (27.9)	2.550(.279)
	여자	83 (76.9)	78 (72.2)	69 (67.0)	230 (72.1)	
결혼여부	미혼	91 (84.3)	89 (82.4)	84 (81.6)	264 (82.8)	.285(.867)
	기혼	17 (15.7)	19 (17.6)	19 (18.4)	55 (17.2)	
학력	고졸이하	40 (37.0)	54 (50.0)	50 (48.5)	144 (45.1)	5.722(.221)
	대졸	65 (60.2)	51 (47.2)	48 (46.6)	164 (51.4)	
	대학원	3 (2.8)	3 (2.8)	5 (4.9)	11 (3.4)	
소득	100만원미만	33 (30.6)	43 (39.8)	34 (33.0)	110 (34.5)	3.753(.879)
	100-200만원	43 (39.8)	34 (31.5)	38 (36.9)	115 (36.1)	
	200-300만원	19 (17.6)	20 (18.5)	22 (21.4)	61 (19.1)	
	300-400만원	7 (6.5)	5 (4.6)	4 (3.9)	16 (5.0)	
	400만원이상	6 (5.6)	6 (5.6)	5 (4.9)	17 (5.3)	
	합계	108 (100.0)	108 (100.0)	103 (100.0)	319 (100.0)	

\*\*\*  $p < .001$

두피 모발 상태 인식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표 5), 연령대별로 는 두피 모발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 26-30세가 상대적으로 높고, 양호는 25세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 성별로 살펴보면, 두피 및 모발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여자 88.5 %, 남자 11.5 %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남자 48.9 %로 나타나, 남자의 두피 모발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알 수 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이 역시 남녀가 모발 상태의 인식이 달랐다는 결과와 유사하며 진병운(2009)의 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보다 모발의 굵기가 굵었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두피 모발 상태 인식에 따른 결혼 여부를 살펴보면, 미혼의 경우 두피 모발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가장 많았으나, 기혼의 경우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불량이나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5$ ).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어릴수록 상대적으로 두피 모발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수가 많고, 남자보다 여자의 두피 모발 상태가 불량하다는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미혼이 기혼보다 상대적으로 불량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일반적 특성과 두피 모발 상태 인식 정도

		불량	보통	양호	합계	$\chi^2(p)$
		n (%)	n (%)	n (%)	n (%)	
연령대	25세이하	63 (60.6)	68 (54.4)	57 (63.3)	188 (58.9)	15.416* (.017)
	26-30세	24 (23.1)	27 (21.6)	12 (13.3)	63 (19.7)	
	31-35세	11 (10.6)	8 (6.4)	3 (3.3)	22 (6.9)	
	36세이상	6 (5.8)	22 (17.6)	18 (20.0)	46 (14.4)	
성별	남자	12 (11.5)	33 (26.4)	44 (48.9)	89 (27.9)	33.690*** (.000)
	여자	92 (88.5)	92 (73.6)	46 (51.1)	230 (72.1)	
결혼여부	미혼	93 (89.4)	103 (82.4)	68 (75.6)	264 (82.8)	6.521* (.038)
	기혼	11 (10.6)	22 (17.6)	22 (24.4)	55 (17.2)	
학력	고졸이하	40 (38.5)	56 (44.8)	48 (53.3)	144 (45.1)	4.783(.310)
	대졸	61 (58.7)	64 (51.2)	39 (43.3)	164 (51.4)	
	대학원	3 (2.9)	5 (4.0)	3 (3.3)	11 (3.4)	
소득	100만원미만	36 (34.6)	43 (34.4)	31 (34.4)	110 (34.5)	4.518(.808)
	100-200만원	43 (41.3)	42 (33.6)	30 (33.3)	115 (36.1)	
	200-300만원	17 (16.3)	27 (21.6)	17 (18.9)	61 (19.1)	
	300-400만원	5 (4.8)	5 (4.0)	6 (6.7)	16 (5.0)	
	400만원이상	3 (2.9)	8 (6.4)	6 (6.7)	17 (5.3)	
	합계	104 (100.0)	125 (100.0)	90 (100.0)	319 (100.0)	

\* $p < .05$  \*\*\* $p < .001$

## 2) 두피 상태 인식과 모발 상태 인식의 상관관계

두피 상태와 모발 상태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두피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모발 상태 역시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40.7 %로 나타났으며, 두피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모발 상태 역시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47.6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두피 상태 인식 집단과 모발 상태 인식 집단의 관계가 유의

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p < .001$ ). 이러한 관계를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두피 상태와 모발 상태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r = .381$  ( $p < .001$ )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두피 상태에 대한 인식의 점수가 높은 경우 모발 상태에 대한 인식의 점수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오강수(2006)의 모발이 손상될수록 두피에 가려움과 비듬이 있었다는 관찰과 유사하다. 이 같은 결과는 폼이나 염색 같은 시술을 많이 하면 두피와 모발 모두 손상이 되며, 두피가 불량하면 자라나는 모발의 상태도 불량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6. 두피 상태 인식과 모발 상태 인식의 관계

	모발상태				$\chi^2(p)$	
	불량	보통	양호	합계		
	n (%)	n (%)	n (%)	n (%)		
두피상태	불량	44 (40.7)	45 (41.7)	19 (17.6)	108 (100.0)	23.702*** (.000)
	보통	37 (34.3)	42 (38.9)	29 (26.9)	108 (100.0)	
	양호	24 (23.3)	30 (29.1)	49 (47.6)	103 (100.0)	
	합계	105 (32.9)	117 (36.7)	97 (30.4)	319 (100.0)	

\*\*\*  $p < .001$

표 7. 두피 상태 인식과 모발 상태 인식의 상관관계 분석

	두피상태	모발상태
두피상태	1	
모발상태	.381***	1

$p < .001$

### 3)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과 생활 습관

두피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생활습관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두피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자주 있다’(37 %)와 ‘매일 있다’(24 %)는 응답이 총 61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다’(5.8 %)와 ‘가끔 있다’(26.2 %), ‘보통이다’(36.9 %)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1$ ). 문영란(2003)은 직장인들의 두피 모발 손상의 원인중 스트레스와 폼, 염색, 드라이가 가장 높음을 보고한 바 있다. 김명우(2007)는 전업주부들의 모발 손상과 탈모의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꼽았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두피의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흡연 여부, 수면시간, 운동습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8. 두피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생활습관

	불량	보통	양호	합계	$\chi^2(p)$	
	n (%)	n (%)	n (%)	n (%)		
스트레스 유무	거의없다	1 (1.0)	4 (3.4)	7 (7.2)	12 (3.8)	13.931(.084)
	가끔있다	17 (16.2)	21 (17.9)	26 (26.8)	64 (20.1)	
	보통이다	32 (30.5)	36 (30.8)	28 (28.9)	96 (30.1)	
	자주있다	30 (28.6)	38 (32.5)	24 (24.7)	92 (28.8)	
	매일있다	25 (23.8)	18 (15.4)	12 (12.4)	55 (17.2)	
흡연여부	흡연	20 (19.0)	17 (14.5)	29 (29.9)	66 (20.7)	7.889* (.019)
	비흡연	85 (81.0)	100 (85.5)	68 (70.1)	253 (79.3)	
음주횟수	음주하지않음	40 (38.1)	50 (42.7)	39 (40.2)	129 (40.4)	3.752(.710)
	주1회	38 (36.2)	46 (39.3)	35 (36.1)	119 (37.3)	
	주2-3회	22 (21.0)	14 (12.0)	16 (16.5)	52 (16.3)	
	주4회이상	5 (4.8)	7 (6.0)	7 (7.2)	19 (6.0)	
수면시간	6시간이하	32 (30.5)	43 (36.8)	28 (28.9)	103 (32.3)	5.642(.228)
	6-8시간	57 (54.3)	66 (56.4)	60 (61.9)	183 (57.4)	

	8시간이상	16 (15.2)	8 (6.8)	9 (9.3)	33 (10.3)	
운동습관	운동을 안한다	65 (61.9)	64 (54.7)	45 (46.4)	174 (54.5)	24.869*** (.000)
	주 1-2회	30 (28.6)	36 (30.8)	19 (19.6)	85 (26.6)	
	주 3-4회	8 (7.6)	11 (9.4)	18 (18.6)	37 (11.6)	
	주 5회이상	2 (1.9)	6 (5.1)	15 (15.5)	23 (7.2)	
	합계	105 (100.0)	117 (100.0)	97 (100.0)	319 (100.0)	

\*\*  $p < .01$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생활습관을 살펴보면(표 9), 모발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자주 있다'(28.6 %)와 '매일 있다'(23.8 %)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다'(7.2 %)와 '가끔 있다'(26.8 %)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운동습관별로는 주3-4회 이상의 경우 모발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주민경(2018)은 주 4회 이상 운동을 하는 남학생들에게서 건강 모가 가장 많았음을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을 많이 할수록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9.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생활습관

	불량	보통	양호	합계	$\chi^2(p)$	
	n (%)	n (%)	n (%)	n (%)		
스트레스유무	거의없다	1 (1.0)	3 (2.4)	8 (8.9)	12 (3.8)	27.524*** (.001)
	가끔있다	19 (18.3)	20 (16.0)	25 (27.8)	64 (20.1)	
	보통이다	22 (21.2)	46 (36.8)	28 (31.1)	96 (30.1)	
	자주있다	36 (34.6)	39 (31.2)	17 (18.9)	92 (28.8)	
	매일있다	26 (25.0)	17 (13.6)	12 (13.3)	55 (17.2)	

흡연여부	흡연	16 (15.4)	27 (21.6)	23 (25.6)	66 (20.7)	3,145(.207)
	비흡연	88 (84.6)	98 (78.4)	67 (74.4)	253 (79.3)	
음주횟수	음주하지않음	45 (43.3)	49 (39.2)	35 (38.9)	129 (40.4)	3,478(.747)
	주1회	41 (39.4)	46 (36.8)	32 (35.6)	119 (37.3)	
	주2-3회	14 (13.5)	23 (18.4)	15 (16.7)	52 (16.3)	
	주4회이상	4 (3.8)	7 (5.6)	8 (8.9)	19 (6.0)	
수면시간	6시간이하	33 (31.7)	41 (32.8)	29 (32.2)	103 (32.3)	2,238(.692)
	6-8시간	58 (55.8)	75 (60.0)	50 (55.6)	183 (57.4)	
	8시간이상	13 (12.5)	9 (7.2)	11 (12.2)	33 (10.3)	
운동습관	운동을 안한다	62 (59.6)	67 (53.6)	45 (50.0)	174 (54.5)	10,683(.099)
	주 1-2회	31 (29.8)	30 (24.0)	24 (26.7)	85 (26.6)	
	주 3-4회	7 (6.7)	20 (16.0)	10 (11.1)	37 (11.6)	
	주 5회이상	4 (3.8)	8 (6.4)	11 (12.2)	23 (7.2)	
	합계	104 (100.0)	125 (100.0)	90 (100.0)	319 (100.0)	

\*  $p < .05$ , \*\*\*  $p < .001$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생활습관을 살펴보면(표10), 두피 모발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스트레스가 ‘자주 있다’(25.0 %)와 ‘매일 있다’(34.6 %)는 응답이 많았으며,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거의 없다’(8.9 %)와 ‘가끔 있다’(27.8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김용숙(2006)은 20-40대 후반 직장 중년 남성들중 탈모군의 경우 대조군보다 직무상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음을 관찰한 바 있다. 조남춘(2005)은 과도한 스트레스는 두피의 근육을 긴장, 수축시켜 모유두에 혈액과 영양분이 충분하게 공급되는 것을 방해하여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어 탈모가 나타난다고 한 바 있다. 이는 스트레스가 두피 모발 악화와 탈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흡연 여부의 경우에는

두피 모발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흡연을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주 횟수, 수면 시간, 운동 습관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생활습관

		불량	보통	양호	합계	$\chi^2(p)$
		n (%)	n (%)	n (%)	n (%)	
스트레스유무	거의없다	2 (1.9)	4 (3.7)	6 (5.8)	12 (3.8)	23.925** (.002)
	가끔있다	16 (14.8)	21 (19.4)	27 (26.2)	64 (20.1)	
	보통이다	24 (22.2)	34 (31.5)	38 (36.9)	96 (30.1)	
	자주있다	40 (37.0)	36 (33.3)	16 (15.5)	92 (28.8)	
	매일있다	26 (24.1)	13 (12.0)	16 (15.5)	55 (17.2)	
흡연여부	흡연	16 (14.8)	26 (24.1)	24 (23.3)	66 (20.7)	3.454(.178)
	비흡연	92 (85.2)	82 (75.9)	79 (76.7)	253 (79.3)	
음주횟수	음주하지않음	51 (47.2)	39 (36.1)	39 (37.9)	129 (40.4)	6.095(.413)
	주1회	36 (33.3)	47 (43.5)	36 (35.0)	119 (37.3)	
	주2-3회	15 (13.9)	15 (13.9)	22 (21.4)	52 (16.3)	
	주4회이상	6 (5.6)	7 (6.5)	6 (5.8)	19 (6.0)	
수면시간	6시간이하	32 (29.6)	45 (41.7)	26 (25.2)	103 (32.3)	7.491(.112)
	6-8시간	66 (61.1)	53 (49.1)	64 (62.1)	183 (57.4)	
	8시간이상	10 (9.3)	10 (9.3)	13 (12.6)	33 (10.3)	
운동습관	운동을 안한다	56 (51.9)	55 (50.9)	63 (61.2)	174 (54.5)	4.448(.616)
	주 1-2회	33 (30.6)	29 (26.9)	23 (22.3)	85 (26.6)	
	주 3-4회	13 (12.0)	15 (13.9)	9 (8.7)	37 (11.6)	
	주 5회이상	6 (5.6)	9 (8.3)	8 (7.8)	23 (7.2)	
	합계	108 (100.0)	108 (100.0)	103 (100.0)	319 (100.0)	

\*\*\*  $p < .001$

### 3. 두피·모발 관리 실태

#### 1) 두피·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샴푸 방법

표 11은 두피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샴푸 방법에 대한 결과이다. 먼저 사용하는 샴푸로는 일반 샴푸가 62.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탈모 방지샴푸 13.2 %, 천연샴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루 샴푸 횟수는 한번 79.9 %, 두 번 이상 11/3%, 매일 하지 않음 8.8 %로 나타났다. 샴푸를 하는 시간의 경우 오전 62.4%, 저녁 23.8% 순으로 나타났다. 두피 상태의 인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샴푸를 하는 방법은 ‘두피를 지문을 이용해 마사지하듯이 문지른다’ 70.2 %, ‘두피와 모발을 함께 문지른다’ 18.8 % 순으로 나타났다. 샴푸 후 물로 헹구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헹굼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3 % 정도로 나타났으며, 두피 상태의 인식에 따른 차이는 두피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헹굼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p < .001$ ). 이는 샴푸 후 물로 충분히 헹구지 않으면 계면활성제와 잔여물이 두피에 남아 비듬이 생기고 두피 이상을 불러 일으킬수 있기 때문이다(강현지, 2011). 샴푸 시 두피와 모발 상태의 고려 정도를 살펴보면, 54.2 %가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샴푸 후 건조방법은 온풍 드라이 69 %, 자연건조 20.1 % 순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1. 두피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샴푸 방법

		불량	보통	양호	합계	$\chi^2(p)$
		n (%)	n (%)	n (%)	n (%)	
사용하는 샴푸	비누	1 (1.0)	1 (.9)	0 (0)	2 (.6)	17.803(.216)
	일반샴푸	63 (60.0)	73 (62.4)	64 (66.0)	200 (62.7)	
	천연샴푸	5 (4.8)	15 (12.8)	7 (7.2)	27 (8.5)	
	비듬방지샴푸	4 (3.8)	8 (6.8)	9 (9.3)	21 (6.6)	
	샴푸 린스 겸용샴푸	2 (1.9)	2 (1.7)	2 (2.1)	6 (1.9)	
	탈모방지샴푸	18 (17.1)	14 (12.0)	10 (10.3)	42 (13.2)	
	단백질샴푸	9 (8.6)	3 (2.6)	2 (2.1)	14 (4.4)	
	기타	3 (2.9)	1 (.9)	3 (3.1)	7 (2.2)	
하루 샴푸 횟수	매일하지않음	15 (14.3)	11 (9.4)	2 (2.1)	28 (8.8)	20.600*** (.000)
	한번	85 (81.0)	95 (81.2)	75 (77.3)	255 (79.9)	
	두 번 이상	5 (4.8)	11 (9.4)	20 (20.6)	36 (11.3)	
샴푸를 하는 시간	오전	55 (52.4)	77 (65.8)	67 (69.1)	199 (62.4)	9.091(.169)
	오후	10 (9.5)	8 (6.8)	5 (5.2)	23 (7.2)	
	저녁	32 (30.5)	27 (23.1)	17 (17.5)	76 (23.8)	
	기타	8 (7.6)	5 (4.3)	8 (8.2)	21 (6.6)	
샴푸를 하는 방법	두피를 손톱으로 문질러 씻어낸다	3 (2.9)	9 (7.7)	10 (10.3)	22 (6.9)	10.009(.264)
	두피를 지문을 이용해 마사지하듯이 문지른다	80 (76.2)	81 (69.2)	63 (64.9)	224 (70.2)	
	모발을 집중적으로 문지른다	0 (.0)	4 (3.4)	3 (3.1)	7 (2.2)	
	두피와 모발을 함께 문지른다	21 (20.0)	21 (17.9)	18 (18.6)	60 (18.8)	
	기타	1 (1.0)	2 (1.7)	3 (3.1)	6 (1.9)	
샴푸 후 물로 헹구는 정도	매우그렇다	31 (29.5)	28 (23.9)	44 (45.4)	103 (32.3)	18.430*** (.001)
	그렇다	49 (46.7)	74 (63.2)	40 (41.2)	163 (51.1)	
	보통이다	25 (23.8)	15 (12.8)	13 (13.4)	53 (16.6)	
샴푸시 두피와 모발상태 고려	예	55 (52.4)	66 (56.4)	52 (53.6)	173 (54.2)	.384(.825)
	아니오	50 (47.6)	51 (43.6)	45 (46.4)	146 (45.8)	
샴푸 후 건조방법	자연건조	23 (21.9)	24 (20.5)	17 (17.5)	64 (20.1)	7283(.295)
	온풍드라이	73 (69.5)	79 (67.5)	68 (70.1)	220 (69.0)	
	냉풍드라이	8 (7.6)	13 (11.1)	7 (7.2)	28 (8.8)	
	선풍기	1 (1.0)	1 (.9)	5 (5.2)	7 (2.2)	
	기타	105 (100.0)	117 (100.0)	97 (100.0)	319 (100.0)	

\*\*\*  $p < .001$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두피 모발 샴푸 방법을 살펴보면(표 12), 모발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하루 샴푸횟수가 두 번 이상이라는 응답이 20.6 %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매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4.3 %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p<.001$ ). 이러한 결과에서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 하루 샴푸 횟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샴푸 후 물로 충분히 헹군다는 응답이 45.4 %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량하다고 인식한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p<.001$ ). 연구대상자들이 샴푸를 깨끗하게 헹구지 않으면 두피와 모발의 상태가 나빠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샴푸 방법

		불량	보통	양호	합계	$\chi^2(p)$
		n (%)	n (%)	n (%)	n (%)	
사용하는 샴푸	비누	1 (.9)	1 (.9)	0 (.0)	2 (.6)	15.329(.356)
	일반샴푸	55 (50.9)	71 (65.7)	74 (71.8)	200 (62.7)	
	천연샴푸	10 (9.3)	9 (8.3)	8 (7.8)	27 (8.5)	
	비듬방지샴푸	12 (11.1)	5 (4.6)	4 (3.9)	21 (6.6)	
	샴푸 린스 겸용샴푸	2 (1.9)	2 (1.9)	2 (1.9)	6 (1.9)	
	탈모방지샴푸	19 (17.6)	12 (11.1)	11 (10.7)	42 (13.2)	
	단백질샴푸	5 (4.6)	6 (5.6)	3 (2.9)	14 (4.4)	
	기타	4 (3.7)	2 (1.9)	1 (1.0)	7 (2.2)	
하루 샴푸 횟수	매일하지않음	10 (9.3)	11 (10.2)	7 (6.8)	28 (8.8)	1.458(.834)
	한번	87 (80.6)	86 (79.6)	82 (79.6)	255 (79.9)	
	두 번 이상	11 (10.2)	11 (10.2)	14 (13.6)	36 (11.3)	
샴푸를 하는 시간	오전	71 (65.7)	70 (64.8)	58 (56.3)	199 (62.4)	5.307(.505)
	오후	4 (3.7)	8 (7.4)	11 (10.7)	23 (7.2)	
	저녁	27 (25.0)	23 (21.3)	26 (25.2)	76 (23.8)	
	기타	6 (5.6)	7 (6.5)	8 (7.8)	21 (6.6)	
샴푸를 하는 방법	두피를 손톱으로 문질러 씻어낸다	9 (8.3)	3 (2.8)	10 (9.7)	22 (6.9)	10.970(.203)
	두피를 지문을 이용해	82 (75.9)	73 (67.6)	69 (67.0)	224 (70.2)	

		마사지하듯이 문지른다				
	모발을 집중적으로 문지른다	2 (1.9)	4 (3.7)	1 (1.0)	7 (2.2)	
	두피와 모발을 함께 문지른다	14 (13.0)	25 (23.1)	21 (20.4)	60 (18.8)	
	기타	1 (.9)	3 (2.8)	2 (1.9)	6 (1.9)	
샴푸 후 물로 행구는 정도 충분	매우그렇다	22 (20.4)	33 (30.6)	48 (46.6)	103 (32.3)	18.813*** (.001)
	그렇다	61 (56.5)	60 (55.6)	42 (40.8)	163 (51.1)	
	보통이다	25 (23.1)	15 (13.9)	13 (12.6)	53 (16.6)	
샴푸시 두피와 모발상태 고려	예	64 (59.3)	59 (54.6)	50 (48.5)	173 (54.2)	2.449(.294)
	아니오	44 (40.7)	49 (45.4)	53 (51.5)	146 (45.8)	
샴푸 후 건조방법	자연건조	23 (21.3)	22 (20.4)	19 (18.4)	64 (20.1)	3.428(.754)
	온풍드라이	70 (64.8)	75 (69.4)	75 (72.8)	220 (69.0)	
	냉풍드라이	13 (12.0)	9 (8.3)	6 (5.8)	28 (8.8)	
	선풍기	2 (1.9)	2 (1.9)	3 (2.9)	7 (2.2)	
	기타	108 (100.0)	108 (100.0)	103 (100.0)	319 (100.0)	

\*\*\*  $p < .001$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두피 모발 샴푸 방법을 살펴보면(표 13), 두피 모발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하루 샴푸횟수가 두 번 이상이라는 응답이 20.0 %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매일 샴푸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2.5 %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1$ ). 이러한 결과는 두피 모발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 하루 샴푸횟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전미영(2012)에 의하면 샴푸는 모발과 두피에 부착되어있는 때나 비듬을 세정할 뿐 아니라 모발의 성장촉진을 위한 마사지 자극의 보조 기능이 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샴푸를 자주 하면 두피의 세정뿐만 아니라 모발의 성장촉진을 자극하여 두피 및 모발의 상태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두피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샴푸 후 물로 행구는 정도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47.8 %로 높았으며,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p < .01$ ). 이는 샴푸 후 물로 충분히 행구지 않으면 두피에 잔여물이 남아 비듬과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고 그에 따라 모발의 상태도 불량해질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13.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샴푸 방법

		불량	보통	양호	합계	$\chi^2(p)$
		n (%)	n (%)	n (%)	n (%)	
사용하는 샴푸	비누	1 (1.0)	1 (.8)	0 (.0)	2 (.6)	20.910(.104)
	일반샴푸	53 (51.0)	85 (68.0)	62 (68.9)	200 (62.7)	
	천연샴푸	10 (9.6)	10 (8.0)	7 (7.8)	27 (8.5)	
	비듬방지샴푸	8 (7.7)	6 (4.8)	7 (7.8)	21 (6.6)	
	샴푸 린스 겸용샴푸	1 (1.0)	3 (2.4)	2 (2.2)	6 (1.9)	
	탈모방지샴푸	22 (21.2)	9 (7.2)	11 (12.2)	42 (13.2)	
	단백질샴푸	6 (5.8)	8 (6.4)	0 (.0)	14 (4.4)	
	기타	3 (2.9)	3 (2.4)	1 (1.1)	7 (2.2)	
하루 샴푸 횟수	매일하지않음	13 (12.5)	9 (7.2)	6 (6.7)	28 (8.8)	15.857** (.003)
	한번	88 (84.6)	101 (80.8)	66 (73.3)	255 (79.9)	
	두 번 이상	3 (2.9)	15 (12.0)	18 (20.0)	36 (11.3)	
샴푸를 하는 시간	오전	68 (65.4)	76 (60.8)	55 (61.1)	199 (62.4)	1.061(.983)
	오후	6 (5.8)	10 (8.0)	7 (7.8)	23 (7.2)	
	저녁	24 (23.1)	31 (24.8)	21 (23.3)	76 (23.8)	
	기타	6 (5.8)	8 (6.4)	7 (7.8)	21 (6.6)	
샴푸를 하는 방법	두피를 손톱으로 문질러 씻어낸다	5 (4.8)	7 (5.6)	10 (11.1)	22 (6.9)	10.756(.216)
	두피를 지문을 이용해 마사지하듯이 문지른다	79 (76.0)	90 (72.0)	55 (61.1)	224 (70.2)	
	모발을 집중적으로 문지른다	1 (1.0)	3 (2.4)	3 (3.3)	7 (2.2)	
	두피와 모발을 함께 문지른다	18 (17.3)	24 (19.2)	18 (20.0)	60 (18.8)	
	기타	1 (1.0)	1 (.8)	4 (4.4)	6 (1.9)	
샴푸후 물로 행구는 정도	매우그렇다	25 (24.0)	35 (28.0)	43 (47.8)	103 (32.3)	16.980** (.002)
	그렇다	55 (52.9)	69 (55.2)	39 (43.3)	163 (51.1)	
	보통이다	24 (23.1)	21 (16.8)	8 (8.9)	53 (16.6)	
샴푸시 두피와 모발상태 고려	예	61 (58.7)	62 (49.6)	50 (55.6)	173 (54.2)	1.963(.375)
	아니오	43 (41.3)	63 (50.4)	40 (44.4)	146 (45.8)	
샴푸후 건조방법	자연건조	22 (21.2)	22 (17.6)	20 (22.2)	64 (20.1)	10.231(.115)
	온풍드라이	73 (70.2)	84 (67.2)	63 (70.0)	220 (69.0)	
	냉풍드라이	8 (7.7)	17 (13.6)	3 (3.3)	28 (8.8)	
	선풍기	1 (1.0)	2 (1.6)	4 (4.4)	7 (2.2)	
	기타	104 (100.0)	125 (100.0)	90 (100.0)	319 (100.0)	

\*\*  $p < .01$

2) 두피·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린스 및 컨디셔너 사용 방법

린스 및 컨디셔너 사용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표 14), 린스 및 컨디셔너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69.3 %가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린스 및 컨디셔너 사용방법의 경우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 도포 54.1 %, 모발 전체 도포 22.3 % 순으로 나타났다. 두피 상태의 인식에 따른 린스 및 컨디셔너 사용방법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4. 두피 상태의 인식에 따른 린스 및 컨디셔너 사용방법

		불량	보통	양호	합계	$\chi^2(p)$
		n (%)	n (%)	n (%)	n (%)	
린스및 컨디셔너 사용	예	79 (73.1)	73 (67.6)	69 (67.0)	221 (69.3)	1.157(.561)
	아니오	29 (26.9)	35 (32.4)	34 (33.0)	98 (30.7)	
두피와 모발전체 도포		9 (8.3)	3 (2.8)	8 (7.8)	20 (6.3)	7.064(.315)
린스및 컨디셔너사 용방법	모발중간부터 끝까지 도포	64 (59.3)	58 (54.2)	50 (48.5)	172 (54.1)	
	모발전체 도포	19 (17.6)	28 (26.2)	24 (23.3)	71 (22.3)	
	기타	16 (14.8)	18 (16.8)	21 (20.4)	55 (17.3)	
	합계	108 (100.0)	107 (100.0)	103 (100.0)	318 (100.0)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린스 및 컨디셔너 사용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표15) 모발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 린스 및 컨디셔너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5 %,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는 14.3%로 나타나, 모발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이러한 결과는 모발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모발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하

기 때문에 린스 및 컨디셔너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린스 및 컨디셔너 사용방법에서는 모발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 도포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표 15.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린스 및 컨디셔너 사용방법

		불량	보통	양호	합계	$\chi^2(p)$
		n (%)	n (%)	n (%)	n (%)	
린스및 컨디셔 너 사용	예	90 (85.7)	82 (70.1)	49 (50.5)	221 (69.3)	29.408*** (.000)
	아니오	15 (14.3)	35 (29.9)	48 (49.5)	98 (30.7)	
린스및 컨디셔 너사용 방법	두피와 모발전체 도포	4 (3.8)	8 (6.8)	8 (8.3)	20 (6.3)	32.243*** (.000)
	모발중간부터 끝까지 도포	69 (65.7)	66 (56.4)	37 (38.5)	172 (54.1)	
	모발전체 도포	26 (24.8)	26 (22.2)	19 (19.8)	71 (22.3)	
	기타	6 (5.7)	17 (14.5)	32 (33.3)	55 (17.3)	
	합계	105 (100.0)	117 (100.0)	96 (100.0)	318 (100.0)	

\*\*\*  $p<.001$

두피 모발 상태에 따른 린스 및 컨디셔너 사용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표 16), 두피 모발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 린스 및 컨디셔너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4.4 %,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17.3 %로 나타나, 두피 모발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 린스 및 컨디셔너를 사용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린스 및 컨디셔너 사용 방법에서는 두피 모발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 도포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표 16.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린스 및 컨디셔너 사용방법

		불량	보통	양호	합계	$\chi^2(p)$
		n (%)	n (%)	n (%)	n (%)	
린스및 컨디셔 너 사용	예	86 (82.7)	85 (68.0)	50 (55.6)	221 (69.3)	16.852 <sup>***</sup> (.000)
	아니오	18 (17.3)	40 (32.0)	40 (44.4)	98 (30.7)	
린스및 컨디셔 너사용 방법	두피와 모발전체 도포	5 (4.8)	6 (4.8)	9 (10.1)	20 (6.3)	19.082 <sup>**</sup> (.004)
	모발중간부터 끝까지 도포	68 (65.4)	66 (52.8)	38 (42.7)	172 (54.1)	
	모발전체 도포	22 (21.2)	32 (25.6)	17 (19.1)	71 (22.3)	
	기타	9 (8.7)	21 (16.8)	25 (28.1)	55 (17.3)	
	합계	104 (100.0)	125 (100.0)	89 (100.0)	318 (100.0)	

\*\*  $p < .01$

### 3) 두피·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두피·모발 관리 방법

두피 모발 관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표 17), 두피 모발 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은 인터넷 34.8 %, ‘미용실 등 전문 관리샵’ 24.5 %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헤어드라이어 사용 여부별로는 83.4 %가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헤어드라이어 사용시간의 경우, 5분 미만 47.2 %, 5-10분 39.3 % 순으로 나타났다. 두피 모발 상태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용하는 두피 모발 화장품 개수의 경우 2-3개 43.3 %, 2개 미만 40.2 %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피 모발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 사용하는 두피 모발 화장품 개수가 ‘2개 미만’이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p < .05$ ). 이는 두피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면 두피 모발 화장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사용하는 개수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사용 중인 화장품 만족도의 경우 두피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5$ ).

표 17.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두피 모발 관리 방법

		불량	보통	양호	합계	$\chi^2(p)$
		n (%)	n (%)	n (%)	n (%)	
두피 모발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	TV등 방송매체	14 (13.5)	18 (14.4)	9 (10.0)	41 (12.9)	13.973(.302)
	잡지 신문등생활정보지	1 (1.0)	2 (1.6)	3 (3.3)	6 (1.9)	
	인터넷	41 (39.4)	43 (34.4)	27 (30.0)	111 (34.8)	
	미용실 등 전문관리샵	24 (23.1)	32 (25.6)	22 (24.4)	78 (24.5)	
	병원 등 전문의사	3 (2.9)	0 (.0)	0 (.0)	3 (.9)	
	주위사람들	13 (12.5)	14 (11.2)	14 (15.6)	41 (12.9)	
	기타	8 (7.7)	16 (12.8)	15 (16.7)	39 (12.2)	
헤어드라이어 사용여부	예	90 (86.5)	108 (86.4)	68 (75.6)	266 (83.4)	5.549(.062)
	아니오	14 (13.5)	17 (13.6)	22 (24.4)	53 (16.6)	
헤어드라이어 사용시간	5분미만	43 (41.3)	53 (42.4)	54 (60.7)	150 (47.2)	11.900(.156)
	5-10분	42 (40.4)	54 (43.2)	29 (32.6)	125 (39.3)	
	10-15분	13 (12.5)	11 (8.8)	3 (3.4)	27 (8.5)	
	15-20분	4 (3.8)	4 (3.2)	2 (2.2)	10 (3.1)	
	20분이상	2 (1.9)	3 (2.4)	1 (1.1)	6 (1.9)	
사용하는 두피 모발화장품 개수	사용하지 않는다	7 (6.7)	10 (8.0)	13 (14.4)	30 (9.4)	13.659* (.034)
	2개미만	35 (33.7)	50 (40.0)	44 (48.9)	129 (40.4)	
	2-3개	51 (49.0)	59 (47.2)	28 (31.1)	138 (43.3)	
	3개 이상	11 (10.6)	6 (4.8)	5 (5.6)	22 (6.9)	
사용중인 화장품 만족도	매우만족하지않는다	3 (2.9)	3 (2.4)	4 (4.4)	10 (3.1)	13.668* (.034)
	만족하지않는다	9 (8.7)	8 (6.4)	2 (2.2)	19 (6.0)	
	보통이다	71 (68.3)	88 (70.4)	50 (55.6)	209 (65.5)	
	만족한다	21 (20.2)	26 (20.8)	34 (37.8)	81 (25.4)	
	합계	104 (100.0)	125 (100.0)	90 (100.0)	319 (100.0)	

\*  $p < .05$

#### 4. 두피 모발 화장품 구매 행동

1) 두피·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제품 구매시 고려사항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제품 구매시 고려사항의 경우(표18) 모발

타입의 고려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두피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한 집단에서 평균 점수가 3.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량하다고 인식한 집단에서 3.3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제품 효과의 고려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두피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한 집단에서 3.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량하다고 인식한 집단에서는 3.6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나머지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8.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제품 구매시 고려사항

	불량	보통	양호	합계	$\chi^2(p)$
	평균	평균	평균	평균	
가격	3.36	3.45	3.53	3.45	0.724(.442)
브랜드	3.23	3.14	3.21	3.19	0.290(.685)
두피타입	3.29	3.51	3.61	3.48	2.530(.073)
모발타입	3.36	3.71	3.72	3.61	4.203(.010)*
품질	3.68	3.78	3.82	3.76	0.491(.540)
효과	3.62	3.88	3.97	3.84	3.127(.027)*
광고	2.68	2.80	2.91	2.80	1.341(.219)
디자인	2.56	2.36	2.53	2.47	1.266(.302)
용량	3.49	3.39	3.50	3.45	0.405(.646)
향	4.07	3.88	3.81	3.91	1.705(.149)
주위평가	3.54	3.56	3.71	3.61	0.882(.369)
전문가권유	3.26	3.33	3.59	3.39	3.062(.047)

\*  $p < .05$

2) 두피·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제품 사용 횟수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두피 모발 화장품 사용횟수에 대하여 살펴 보면(표 19), 트리트먼트의 경우 두피 모발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평균점수가 3.21점으로 가장 높았고 불량하다고 인식한 집단에서 2.2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에센스 및 세럼의 경우 두피 모발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의 평균점수가 3.05점으로 가장 높았고, 불량하다고 인식한 집단의 평균점수는 2.2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이진희(2013)는 헤어 오일은 동백유, 올리브유, 유동 파라핀의 광물류를 주성분으로 고급 지방산에 에스테르, 스쿠알렌, 실리콘류를 배합하여 모발에 유분을 공급하여 유연성과 광택을 준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에센스 및 세럼을 많이 사용할수록 두피 및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변인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9.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두피 모발 제품 사용 횟수

	불량	보통	양호	합계	$\chi^2(p)$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샴푸	3.38	3.64	3.60	3.55	1.871(.489)
컨디셔너	2.81	3.09	3.21	3.05	4.015(.254)
트리트먼트	2.28	2.59	2.87	2.59	8.330(.047)*
에센스 및 세럼	2.24	2.80	3.05	2.72	16.717(.003)**
두피용 앰플	1.24	1.17	1.22	1.21	0.169(.711)
모발용 앰플	1.31	1.35	1.37	1.34	0.076(.920)
헤어로션	1.26	1.49	1.51	1.43	1.909(.196)

스프레이	1.44	1.21	1.21	1.28	1.782(.085)
젤	1.14	1.10	1.02	1.08	0.391(.198)
무스	1.02	1.00	1.02	1.01	0.016(.521)
왁스	1.33	1.13	1.05	1.16	2.067(.004)**

\*  $p < .05$ , \*\*  $p < .0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7년 11월 27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두피 모발상태의 인식에 따른 관리의 실태와 제품의 구매 속성 및 만족도에 관해 알아봄으로써 성장하고 있는 두피 모발 시장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정보를 공급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피의 상태와 모발의 상태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피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한 그룹의 경우 모발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40.7 %로 나타났으며, 두피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한 그룹의 경우 모발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47.6 %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두피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인식이 높고 두피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할수록 모발의 상태 또한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두피와 모발 상태의 남녀 차이를 살펴보면 두피 모발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여자 88.5 %, 남자 11.5 %로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두피 및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한 경우는 남자가 48.9 %로 나타나 여성에 비해 남성이 두피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생활습관에 따른 두피 모발의 상태를 살펴보면 먼저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생활습관에서 주 3~4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운동을 많이 할수록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

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생활 습관에서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모발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한 집단에서는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다’(25.0 %)와 ‘스트레스를 매일 받는다’(34.6 %)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두피 모발의 상태가 양호한 그룹에서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8.9 %)와 ‘가끔 있다’(27.8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두피 및 모발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두피 모발 상태에 따른 샴푸 방법, 린스 및 컨디셔너 사용방법을 살펴보면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한 그룹에서 샴푸 후 물로 충분히 헹군다는 응답이 45.4 %로 높게 나타났고 샴푸 횟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하루 샴푸 횟수가 두 번 이라는 응답이 20 %로 높게 나타나 두피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 샴푸 후 물로 충분히 헹구고 샴푸를 자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린스 및 컨디셔너의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두피 및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한 그룹은 린스 및 컨디셔너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55.6 %로 나타났고 두피 모발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한 그룹은 사용한다는 응답이 82.7 %로 나타나 두피 모발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할수록 린스 및 컨디셔너를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두피 모발 상태에 따른 관리방법을 살펴보면 사용하는 두피 모발 화장품의 수를 묻는 질문에서 두피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한 그룹은 2개 미만이라는 응답이 48.9 %로 가장 높았고 두피 모발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한 그룹은 2~3개라는 응답이 49.9 %로 가장 높았다. 이것으로 보아 두피 모발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할수록 사용하는 두피 및 모발 화장품의 개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용 중인 두피 및 모발 화장품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두피 모발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한 그룹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37.8 %로 세 그룹중 가장 높게 나타나 두피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 사용하는 두피 및 모발 화장품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두피 모발 상태의 인식에 따른 제품 구매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모발 타입과 효과의 고려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두피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한 집단의 평균점수가 각각 3.72점, 3.97점으로 나타났다.

두피 모발 상태에 따른 두피 및 모발 화장품 사용횟수를 살펴보면 두피 및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한 그룹에서의 트리트먼트 사용빈도 점수는 2.8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에센스 및 세럼의 사용빈도 점수는 3.05점으로 높게 나타나 두피 및 모발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 샴푸와 에센스 및 세럼 같은 두피 모발 케어 제품을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한국의 성인 남녀는 두피 모발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두피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식할수록 모발의 상태 역시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잦은 펌, 염색 같은 시술로 인해 남성보다 두피 및 모발의 상태가 더 불량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피와 모발 상태의 인식은 운동과 스트레스 같은 생활습관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관리방법과 사용하는 제품의 개수, 사용빈도,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소비자들이 정확히 자신의 두피 및 모발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맞춤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품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가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전국의 성인 남녀 319명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아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두피 및 모발의 상태를 조사대상자가 직접 판단하여 점수화 한 것으로 조사대상자의 주

관적인 판단으로 인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관리 방법과 제품의 구매 행동, 사용실태에 관한 일반화된 연구 결과를 위해 전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한 더 큰 표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두피와 모발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정확한 상태의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두피 및 모발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1. 강수연 이경아(2017). 미용전공 대학생들의 두피·모발에 대한 자가인식에 기반한 융합적 관리형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2), 235-241
2. 강현지(2011). 두피 모발 관리실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향장미용전공, 석사학위논문, pp.1-109
3. 국경미 김춘득(2010). 두피 및 모발 관리 후 고객만족도 분석.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지, 6(2), 153-161
4. 권용선(2012). 여대생들의 생활습관이 두피·모발 상태에 미치는 영향: 미용전공·일반전공 집단 간 차이점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pp.1-60
5. 김경민(2006). 헤어스타일 변화시 여성들의 심리변화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향장미용학과, 석사학위논문, pp.1-75
6. 김관옥 김성남(2011). 탈모요인 자가인식이 건강관리와 두피, 모발관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2), 50-60
7. 김광희(2017). 건강신념모델과 범이론적 모형을 적용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두피, 모발 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박사학위논문, PP.1-158
8. 김근수 이유종 강영숙 이채만(2011). 모발 두피관리의 인식과 실태에 대한 조사. 미용산업연구, 2(2), 1-10
9. 김명우(2007). 전업주부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두피·모발관리 인식 및 행동 인식. 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지, 1(1), 5-12
10. 김은희 한채정(2014). 두피 모발 관리시설에 따른 이용실태 및 만족도 비교연구. 한국인체미용학술회지, 15(3), 59-68

11. 김지연.(2013). 두피·모발 관리의 이용실태, 제품구매속성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건강복지학과 피부비만관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pp.1-78
12. 김지현(2005). 두피·모발 관리실의 고객만족도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미용학회지, 1(1), 13-30
13. 류혜란 김남연(2010). 두피 모발 관리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 강남지역 30~40대 남성을 중심으로. 대한피부미용학회지, 8(3), 165-173
15. 박지선 임은진(2009). 현대인의 모발화장품 구매행동 연구: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대한피부미용학회지, 7(1), 143-152
16. 배인선 고경숙(2011). 성인 여성의 외모관리 행동과 모발, 두피관리 성향이 제품 구매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7(4), 669-679
17.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http://www.snuh.org/intro.do>), 2017
18. 송정빈 김진숙(2017). 여성들의 자가진단에 따른 모발 및 두피관리 특성에 관한 연구. 뷰티산업연구, 11(2), 43-64
19. 연합뉴스, ‘제2 피부’ 두피 모발 관리하는 여성 늘었다. 2016. 05. 06)<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4/0200000000AKR20160504161500030.HTML> (연합뉴스, 2016. 05. 06)
20. 오강수(2006). 두피 및 모발관리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향장미용학과, 석사학위논문, pp.1-100
21. 오정선(2011). 여대생들의 두피 모발에 대한 인식 및 모발 관리 형태.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2(2), 131-142
22. 오정선(2011). 여대생들의 두피·모발에 대한 인식 및 모발 관리 형태.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2(2), 131-142
23. 위수영 임은진(2010). 두피, 모발 관리실 고객의 이용실태와 만족도. 대한미용학회지, 6(1), 7-14

24. 이경란(2008). 두피·모발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강원, 충청북지역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향장미용전공, 석사학위논문, pp.1-105
25. 이소정(2008). 20-30대 여성의 미용 관심도와 변화 수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향장미용전공, 석사학위논문, pp.1-107
26. 이수연 전해지 최옥분 윤지영 이진영 박주훈(2011). 국내 두피·모발 화장품의 산업 현황 연구. 기초과학연구 논문집, 19(1), 149-160
27. 이영재(2005). 구매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모발화장품 관여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컨설팅학전공, 석사학위논문, pp.1-135
28. 이은경(2017). 남성전문 뷰티살롱의 이용실태와 만족도 연구.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 미용화장품학과, 석사학위논문, pp.1-76
29. 이정환(2012). 혁신적 탈모이론 열성탈모. 열린시대사. pp.1-400
30. 이진희(2013). 여성의 모발 화장품에 대한 인식과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향장미용전공, 석사학위논문, pp.1-113
31. 임경근(2007). 인터랙티브 헤어모드 기술메뉴얼. 온헤어미디어. pp.1-244
32. 임이화(2006). 모발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행동과 사용실태.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의약식품학과 향장미용학전공, 석사학위논문, pp.1-66
33. 장지연(2012). 전남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두피 및 모발관리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뷰티미용학과, 석사학위논문, pp.1-118
34. 장지연(2013). 대학생들의 두피, 모발관리 인식과 탈모자각증상에 따른 상관관계.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2), 485-497
35. 전미영(2012). 대전 충청지역 청소년의 두피인식 및 샴푸행태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향장미용학과, 석사학위논문, pp.1-79
36. 전정애(2007).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의 두피·모발관리에 대한 인식 및 실태

- 태.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향장미용전공, 석사학위논문, pp.1-119
37. 조남춤(2005). 탈모자와 일반인의 두발상태 및 관리, 식습관, 스트레스정도, 가족력에 대한 비교분석.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의약식품학과 향장미용학전공, 석사학위논문, pp.1-61
38. 주민경(2018). 남자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두피관리 행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미용보건학과, 석사학위논문, pp.1-68
39. 진병운(2009).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정상 모발의 물리적 성질과 형태학적 변화 관찰.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뷰티디자인학과, 박사학위논문, pp.1-97
40. 최지연(2017).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상태와 두피·모발상태 및 관리 행동.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용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pp.1-100
41. 최진선(2013). 두피 및 모발 상태에 따른 관리습관과 모발 화장품의 사용실태: 20-30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피부비만관리학전공, 석사학위논문, pp.1-95
42. 현가영(2015). 대학생들의 두피·모발관리 인식에 따른 행동.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용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p.1-61

# ABSTRACT

## An Analysis of Scalp and Hair Condition Awareness and Scalp and Hair Care Status

Kang, jinju

Skincare and Coordination Major

Department of Convergence Beauty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Beau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While hair is another element of beauty that gives human beings individuality, confidence in their appearance, and many different atmospheres, more and more people have recently been worried about the damaged scalp and hair as well as about hair loss at younger age because of excessive stress, the changes in dietary life, and more frequent permanents and dyeing than before. In this context, functional products have been released and put on the scalp and hair beauty product industry marketing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calp and hair care status according to awareness of the scalp and hair conditions, identify the problems of scalp and hair care, and provide data necessary to develop scalp and hair care programs and products. 319 men and women in their twenties to fifties from all over the country were asked to self-diagnose

and score for their scalp and hair conditions; then, they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good, average, and poor. The good, average, and poor groups scored 44.87, 36.03, and 27.70, respectively, on average for awareness of the scalp conditions and 39.95, 31.04, and 22.27, respectively, on average for awareness of the hair conditions.

First, as for gender differences in awareness of the scalp and hair conditions, men (55.7%) were relatively more likely to think of their scalp and hair conditions as good, and women (90.5%) were relatively more likely to think of the conditions as poor.

Second, as for the living habits by awareness of the scalp and hair conditions, 25% *often* experienced stress and 34.6% experienced stress *every day* in the poor scalp and hair condition group, and 8.9% experienced *almost no* stress and 27.8% experienced stress *sometimes* in the good scalp and hair condition group.

Third, as for shampoo, treatment, and conditioner utilization status by awareness of the scalp and hair conditions, 20.2% in the good scalp and hair condition group had a shampoo at least twice a day, and 2.9% in the poor scalp and hair condition group had a shampoo at least twice a day. As for the level of rinse after shampooing, 47.8% in the good scalp and hair condition group were at a *high* level, and 24% in the poor scalp and hair condition group were at a *high* level.

Fourth, as for the scalp and hair care methods by awareness of the scalp and hair conditions, 5.6% in the good scalp and hair condition group and 10.6% in the poor scalp and hair condition group had *at least three* scalp and hair beauty products.

Fifth, as for the frequency of using products and considerations in purchasing them by awareness of the scalp and hair conditions, the good and poor scalp and hair condition groups scored 3.72 and 3.36, respectively, on average for giving consideration to hair type and 3.05 and 2.24, respectively, on average for the frequency of applying essence and serum.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had poor scalp and hair conditions and used scalp and hair care products to improve the conditions, giving more consideration to the scalp or hair conditions than to the price in purchasing the products. The better scalp and hair conditions they had, the more satisfied they we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dicators by which consumers can correctly determine their scalp and hair conditions.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본 조사에 응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석사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것으로 '두피·모발관리에 대한 인식이 두피·모발화장품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 조사의 자료는 무기명으로 통계 처리해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잘 활용하여 가치 연구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연구자 강진주

지도교수 배현숙

설문자 (서명)

<일반적인 특성>

1. 귀하의 연령은? 만 (                      ) 세
2.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3.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미혼 ②기혼
4. 귀하의 학력은?  
①초등학교졸업 ②중학교졸업 ③고등학교졸업 ④대학교졸업 ⑤대학원졸업
5. 귀하의 직업은?  
①학생 ②주부 ③회사원 ④공무원 ⑤전문직 ⑥기타
6. 귀하의 평균 월 소득은?  
①100만원 미만 ②100-200만원 ③200-300만원 ④300-400만원 ⑤400만원이상

<생활습관>

7. 귀하의 스트레스유무는?  
①거의없다 ②가끔있다 ③보통이다 ④자주있다 ⑤매일있다
8. 귀하의 흡연여부는?  
①흡연 ②비흡연
9. 귀하의 음주 횟수는?  
①음주하지않음 ②주 1회 ③주2-3회 ④주 4-5회 ⑤주 6-7회
10. 귀하의 수면시간은?  
①4시간 미만 ②4-6시간 ③6-8시간 ④8-10시간 ⑤10시간이상
11. 귀하의 운동습관은?  
①운동을 안한다 ②주 -2회 ③주 3-4회 ④주 5-6회 ⑤매일한다

<두피 모발타입>

12. 귀하의 두피타입은?

- ① 정상
- ② 지성: 머리를 감은지 3-4시간이 지나지 않아 기름이 끼고 냄새남
- ③ 건성: 2일쯤 머리를 감지 않아도 기름이 끼지 않고 머리를 감은 후 상태 계속 유지
- ④ 민감성: 두피에 여드름 또는 뾰루지가 생기거나 긁으면 아프고 자주부음
- ⑤ 비듬성  
 건성비듬: 가려우며 하얀 가루처럼 날리거나 머릿결을 타고 떨어짐  
 지성비듬: 머리 밖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기름기가 느껴지며 긁으면 노란 것이 묻어남
- ⑥ 복합성: 두피에는 기름이 끼는데 모발은 건조함
- ⑦ 기타

13.귀하가 생각하는 두피 상태에 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항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5	4	3	2	1
두피에 염증이 있다.					
두피가 건조하다.					
두피에 상처가 많다.					
두피에 자극을 받는다.					
두피가 쉽게 붉어진다.					
두피에 가려움을 느낀다.					
두피에 비듬이 있다.					
두피에 피지와 트러블이 있다.					
두피를 만지면 열이 느껴진다.					
두피가 당기는 느낌이 있다.					

14.귀하가 생각하는 모발 상태에 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항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5	4	3	2	1
모발이 건조하다					
모발이 갈라진다.					
모발에 윤기가 없다.					
모발이 손상되었다.					
백모가 있다.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진다.					
머리카락이 자주 영킨다.					
하루에 빠지는 모발이 80개이상이다.					
머리카락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					
머리카락이 끊어진다.					

<두피 모발 관리행동>

15. 귀하가 두피 모발관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곳은?

- ①TV등 방송매체 ②잡지 신문 등 생활정보지 ③인터넷 ④미용실 등 전문관리샵  
⑤병원 등 전문 의사 ⑥주위사람들 ⑦기타

16. 귀하가 사용하는 샴푸의 종류는?

- ①비누 ②일반샴푸 ③천연샴푸 ④비듬방지샴푸 ⑤샴푸 린스 겸용샴푸  
⑥탈모방지샴푸 ⑦단백질샴푸 ⑧기타

17. 귀하의 하루 샴푸 횟수는?  
 ① 매일하지않음 ②한번 ③두번 ④세번이상
18. 귀하가 하루중 샴푸를 하는 시간은?  
 ①오전 ②오후 ③저녁 ④기타
19. 귀하께서 샴푸를 하는 방법은?  
 ①두피를 손톱으로 문질러 깨끗이 씻어낸다.  
 ②두피를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마사지 하듯이 문지른다.  
 ③두피는 문지르지 않고 모발을 집중적으로 문지른다.  
 ④두피와 모발을 함께 문지른다  
 ⑤기타
20. 귀하께서는 샴푸후 물로 충분히 헹구십니까?  
 ①매우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21. 귀하는 샴푸를 사용할 때 두피와 모발상태를 고려합니까?  
 ①예 ②아니오
22. 귀하께서는 샴푸 후 모발 건조를 하는방법은?  
 ①자연건조 ②온풍 드라이 ③냉풍드라이 ④선풍기 ⑤기타
23. 귀하는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합니까?  
 ①예 ②아니오
24. 귀하의 헤어드라이어 사용시간은?  
 ①5분미만 ②5-10분 ③10-15분 ④15-20분 ⑤20분이상
25. 귀하께서는 샴푸 후 린스 및 컨디셔너를 사용합니까?  
 ①예 ②아니오

26. 귀하는 린스 및 컨디셔너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 ①두피와 모발 전체에 바른다.
- ②모발 중간부터 모발끝까지 바른다.
- ③모발 전체에 바른다.
- ④기타

27. 귀하께서 사용하는 두피 모발화장품의 개수는?(샴푸, 린스, 컨디셔너 포함)

- ①사용하지않는다 ②2개미만 ③2-3개 ④3-4개 ⑤5개이상

28. 현재 귀하께서 사용하고있는 두피 모발화장품의 만족도는?

- ①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②만족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만족 한다 ⑤매우 만족 한다

<두피 모발 화장품 구매 행동>

29. 귀하의 두피 모발 화장품 구매시 고려사항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고려한다	고려한다	보통이다	고려하지 않는다	전혀고려 하지않는다
	5	4	3	2	1
가격					
브랜드					
두피타입					
모발타입					
품질					
효과					
광고					
디자인					
용량					
향					
주위평가					
전문가 권유(미용실, 의사 등)					

30. 귀하의 두피 모발 화장품 사용 횟수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일사용	주4~6회	주2~4회	주1회	사용하지 않는다
	5	4	3	2	1
샴푸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에센스 및 세럼					
두피용 앰플					
모발용 앰플					
헤어로션					
스프레이					
젤					
무스					
왁스					